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그간의 진행과 준비·대응 방향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는 하수처리 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폐수배출사업장의 배출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장으로 하여금 계절별, 시간대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분석,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공정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2006년 7월에는 1~3종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하수·폐수처리시설 18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측정기기의 충분한 성능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 민간사업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4월에 민간사업장에 대한 TMS 구축기한을 1년간 유예하기도 하였다. 그간의 환경부에서 추진해온 수질TMS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성상에 맞는 수질자동 측정기기 선정시 고려사항, 시료 채취 지점, 배수관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설치시 고려사항 등 기업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현황과 대책방향」,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선정·설치 및 운영관리」, 「수질TMS 설치·운영사례 소개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부〉

꼭 읽는 순서

Part 1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현황과 대책방향 (박연수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

Part 2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선정·설치 및 운영관리 (이영주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 수질관제팀 차장)

Part 3 수질TMS 설치·운영사례 소개 및 발전방향 (이길용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보건그룹 총괄)